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주 일 예 배

오전 11시

교회소식

선교기도

찬 양*

기도인도

봉 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 도*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사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8월의 선교사(추기성)를 위한 기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찬 369)

그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18:12-17

주안에 있는 나에게

“소스데네 폭행 사건 이후”

내 주여 뜻대로(찬 549)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8월 “이달의 선교사”는 추기성 선교사(멕시코 과달라하라)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7/11-8/15 6주동안 사역자훈련**을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한 모든 사역자들이 다시한번 본분을 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4. **2021 Back to school 새벽기도회**가 7/24(토)~9/4(토) 7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도록 자녀를 둔 가정은 물론 가능한 모든 분들이 함께 토요일 현장기도회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5.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6. **새가족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지하 아동부실에서 있습니다.
7. **중보기도회**가 다음 주일(8/29) 예배 후에 새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문의-정주애, 양명철)
8. **삼공부**가 9월부터 시작합니다. 안내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 받으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9월부터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로 확대됩니다. 영상새벽기도회도 계속 병행이 됩니다.
10. **교역자 피정** - 양명철 목사가 8월 16일(월) - 8월 28일(토)에 피정을 다녀옵니다.
11. 새 예배당 준공검사를 마치고, 사용허가를 받아 속히 입당하도록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2.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월~토)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현장기도회와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3.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허리케인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울림 가족들은 물론이고, 뉴욕지역에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은 국제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접한 한 주였습니다. 아이티에서는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0년 있었던 지진 피해도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암살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약 2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비규환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20년 동안 주둔했던 미군이 지난 5월 3일 이후 철수를 시작하면서, 8월 15일로 탈레반이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현 정부가 무너지며 들어선 탈레반 정권은 반인륜적 집단입니다. 그들은 여성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종교적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미명 하에 탄압과 살해를 일삼는 폭력적 집단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그 땅을 피로 물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탈레반 군대가 수도 카불에 입성하며 외국인들은 모두 나왔고,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조차 탈출하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온 몸을 휘감는 부르카를 쓰지 않은 여성을 거리에서 총살하고 있고, 앞으로 대숙청이 예상되기에 이륙하는 비행기의 바퀴와 날개를 붙잡고 탈출을 시도하다 공중에서 떨어져 죽거나 바퀴에 압사하고, 아이라도 탈출시키겠다고 철조망 너머 미군에게 아이를 던지는 어머니까지 있습니다. 처참하기 짝이 없는 뉴스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적게는 1조달러, 많게는 2조달러의 재정을 쏟아부었음에도 아프가니스탄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채 그렇게 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도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건강, 돈, 인맥, 명예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오직 주님 뿐입니다.